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지혜마루’ 개원

17억 원 투입해 연면적 498.82㎡ 지상 2층 규모...입소 정원 45명

치매어르신 인지기능·신체기능 향상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여수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건립한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지혜마루’가 11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권오봉 여수시장과 전창곤 여수시 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및 마을 주민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여수시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발맞춰 2018년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해 소라면 서부로 6,189㎡ 부지에 총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연면적 498.82㎡, 지상 2

층 규모의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를 지난해 10월 준공했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대표이사 김정숙)가 2025년까지 5년간 맡는다.

입소 정원은 치매 어르신 25명, 일반 어르신 20명으로 총 45명이며, 생활실과 프로그램실, 사무실, 식당,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프로그램 관리자 등 16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과 신체기능 향상을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치매는 이제 개인이나 그 가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도와야 하는 과제”라고 밝히며,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3,764명이며,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수는 576명으로 3천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보호받고 있다.

여수시는 2017년 11월 여수시치매안



심센터를 열고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료 관리비 지원뿐만 아니라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 치매인식개선과 파트너교육

등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수=오상호 기자

함평 월야면 복지공동체 “생활불편 NO! 언제든 부르면 OK!”

어르신의 집안 내·외부 청소하고 화장실 설치 등 환경정비 실시



함평군 월야면 복지공동체는 11일 주거 장관 교체 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세대를 찾아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복지공동체는 아궁이 사용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특히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집안 내·외부를 청소하고 화장실 설치, 도배

정오 복지공동체장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재능봉사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백인상 월야면장은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대원님들의 적극적인 봉사로 취약계층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월야면 복지공동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이동통신비 3만3500원 감면 사실 알렸더니...

광주 광산구, 4대 생활요금 감면 ‘노력’

1만522건 해결...1억 3천만원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예도 제도를 몰라 받지 못하는 4대 생활서비스 요금 감면제도가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에 뿌리내리고 있다.

광산구는 감면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생활수급세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 장애인에게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감면이 가능하고 관련 절차를 돕겠다는 안내를 올해 초부터 해왔다.

안내 결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감면을 요청해 완료한 건수는 지난달 26일 기준 1만522건건, 총 금액으로는 약 1억3000만 원에 달한다.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동통신 요금은 최대 3만3500원,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2만4000

원, TV수신료는 면제다.

광산구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새롭게 신청하는 주민에게 4대 생활서비스 요금 감면이 가능함을 알리고 있다. 감면 사각지대를 광산구에서 없애기 위한 조치다.

당사자의 신청만을 요구하는 제도가 이런 현상을 낳았다고 본 광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하도록 더불어민주당에 법률 개선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동시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4대 생활요금 감면 사각지대 해소는 광산구가 작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전국 최초로 체결한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협약의 산물이다.

임형택 기자

고흥군,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교육 개강

노인복지증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고흥군은 지난 9일 고흥어울림센터에서 수강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우리동네 청년브릿지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증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노인심리상담사’와 ‘손발운동관리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심리상담사’는 3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손발운동관리지도사’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로, 매주 2회씩, 총 10회에 걸쳐 실시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리를 두어 주세요!